

구 오노코바초등학교 재해 교사

1882년 개교한 구)오노코바초등학교는 활기가 넘치는 공립학교로서 학부모와 이웃들이 아이들과 함께 축제와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화쇄류가 건물을 덮쳐 내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헤이세이 대분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재해 직후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분화에 의한 파괴의 대부분은 파괴적인 화쇄류와 토석류, 급속히 흘러내린 화산이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화쇄류란 화산 분화시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리는 고온 가스, 화산재, 화산암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1991년 전반기에 대량의 용암이 시마바라 산에서 뿜어져 나와 불안정한 종상화산이 형성되었습니다. 1991년 6월 3일에 종상화산 중 하나가 붕괴되어 43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화쇄류가 발생했으나, 학교는 피해를 면했고 안에 있던 아동과 교직원들은 모두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은 바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학교는 폐쇄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5일 또 다른 종상화산이 붕괴되었고 이번에는 학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화쇄류의 돌과 잔해들 상당량이 학교 뒤편 계곡으로 쏟아졌고 건물은 화산재와 가스운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한 화재로 창문은 깨졌고 금속은 뒤틀렸으며 주변 식물은 검게 타았습니다.

학교는 현재 화산의 힘을 증명하고 인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재해 유구로서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빈 교사 옆 은행나무는 화재로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는 싹이 트기 시작하여 희망과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